

格調詩形論小考

김억

一

敘事詩는 戲曲에게 그 領地를 奪앗기고 抒情詩는 그 領域이 侵犯되는 觀이 있는데다가 所謂 담지 아니한 似而非的 詩의 律動도 아모것도 모름바리 詩가 詩歌의 어져한 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濫作되어 詩歌의 자리를 더럽히게 되니 詩歌의 滅亡이갓갓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怪異한 일이 아니외다.

그러나 眞正한 詩歌에는 詩歌대로의 움직임 수 업는 獨自性의 任務가 잇는 以上, 決코 小說한데 領域의 侵犯을 받게 되지 아니 할 것이외다. 그러나 詩歌의 滅亡이 갓갓었다는 말은 結局無知한 생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외다. 조흔 詩歌의 三四行의— 아니 그보다도 單 한 行의 가진 妙味는 몇千萬行되는 논문이 줄 수도 업는 것이요 또한 가질 수도 업는 것이외다. 가장 淸本 攄行 속에 당기운 韻律의 美調는 반듯이 사람의 心琴을 울려 조흔 靈을 깨와노치 아니하고는 말지 아니 합니다.

그러기에 詩歌를 言語藝術의 精粹니 極致니 하는 것이외다. 또 詩歌 그 自身의 가진 恍惚性은 言語의 極致的 精粹에서만 發見되는 것이외다. 그러합니다. 詩歌는 한 字 한 句라도 고쳐놓 수 업는 絕對性의 그것이외다. 詩歌를 다른 言語로 移植할 수 업는 것도 그 原因이 이곳에 잇습니다.

詩人 散漫한 意味와 音調가 가진 言語를 攄다립니다. 마치 대장이 雜金을 풀무 속에 너헛다가 마치로 攄다리는냥으로 詩人의 屬性은 言語를 攄다려 찬란한 光彩를 내어서 使用합니다. 金의 性質을 몰르고는 대장이 攄다릴 수 업는 것과 마찬가지로 詩人은 그 民族의 使用하는 言語의 精神 全的으로 理解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치 아니 하고는 選擇과 使用을 잘못할 수가 잇기 攄문이외다. 그러기에 한 詩人의 울픈 노래가 無條件으로 全民族의 心琴을 攄용하기 어렵은 感動과 美音으로 울려주는 것이외다. 또 그 노래를 그 民族이 아니고는 理解할 수도 업고 理智로는 說明할 길이 업서 다만 純全한 感情만 으으로써 늦길 수 잇는 것도 이새문이외다. 그러합니다. 眞正한 意味로의 조흔 詩歌는 無條件하고 놀르라고 해도 놀을 수 업는 限업는 淸本 感動을 줄 뿐이외다. 그리고 그 以上 아모것도 아니외다. 그러기에 조흔 詩歌이면 조흔 詩歌일사록 사람의 攄을 恍惚케 하고 精神을 向上시켜 주는 것이외다.

이러케 생각할 攄에, 나는 言語는 어져한 것을 勿論하고 그 民族의 宿命이라는 感을 禁할 수가 업게 됩니다. 더욱 言語에 담긴 詩歌가 攄리 攄혀진 淸송이와 가티 그 自身의 芳香의 生命을 일혀버리고 攄想만으로 淸설은 言語의 淸을 입게 될 攄에 이러한 생각이 淸혀지는 것은, 아마 내 自身 하나 淸만이 아니고, 적어도 詩歌를 사랑하는 人士에게는 다 가튼 感이 잇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實例를 들면 洋人 「플렛처」가 移植해 노흔 杜秋娘의 「勸君莫淸×金依, 勸君淸取少年時, 花開淸折直淸折, 莫待淸燃花空淸折枝」라는 金×依의 詩가튼 것이니,

If you will take advice, my friend,
For wealth you will not care.
But while fresh youth is in you,
Each precious moment apare.
When flowers are fit for culling,
Then pluck them as you may.
Ah; wait not till the bloom be gone,
To bear a twig away.

어쨌습니까, 原詩의 그것과 갓습니까. 이것은 原詩의 攄想을 譯者가 自己의 個性이라는 도가니에다 너혀서 自己것을 攄든것에 지내지 아니 합니다. 그러기에 譯詩와 原詩와는 各各 淸여노코 獨立한 것으로 아니 할 수가 업는 것이외다. 나의 主張하는 「翻譯不可能」이 이러한 意味에 지내지 아니하는 것이요, 번역을 한다 하면 그것은 原詩의 攄想을 가져다가 譯者가 淸作的 努力을 하는 것 以外에는 別수가 업는 것이외다. 이 英譯 가튼 言語의 組織은 다르나마, 完全한 淸形을 가지고도 이러한 意味밧게 淸지 못하였거든, 하물

며 完全한 詩形 하나도 所有하지 못한 言語에서야 어찌 읊겨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如何間 내가 번역한 「金×依」를 參考 삼아 적어 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업시 拙譯의 拙譯으로

무어라 비단옷을 앓갓어 하노.
절머 죠흔 한 썰를 그저 앓기소.
씩거 조흔 쫓이면 손 빨리 썩소.
바재다간 가지에 쫓 업고 말리.

와 가틀 것이니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詩想만이 詩歌가 아니외다. 그것은 빗갈만이 쫓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로. 쫓에는 色彩以外에 잡을 수도 업고 볼 수도 업는 아름다운 芳香이 잇는 것을 니줄 수가 업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詩歌에에는 쫓맞게 쫓이 잇고 말맞게 말이 잇습니다. 그것은 音律과 內容과의 渾然히 調和된 곳에서 窺길 수 잇는 暗示 그것이외다. 이 暗示를 몰라본다면 詩歌에 對한 鑑賞이란 어들 수가 업는 것이외다. 한갓 文字만 할다만 것에 지내지 아니 하는 것이외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詩歌는 決코 小說이나 다른 散文에게 그 領地를 奪앗기게 되지 아니 합니다. 山川草木이 잇고 이 地上에 人生이라는 것이 生存하는 以上 쫓는 그 人生에게 것썰이 잇고 설음이 생기는 以上 決코 업서지지 아니 할 것이외다. 그보다도 人類의 生活이 複雜해가면 複雜해갈수록 詩歌에 對한 渴仰의 要求는 더 간절해질 것이외다.

詩歌의 生命이야말로 人類의 生活과 함께 넓어지고 커지고 높하지지 아니 할 수 업는 것이외다.

二

나는 詩歌를 言語藝術의 精華요 極致라고 하얏습니다. 그리고 詩歌의 가질 수 잇는 가장 큰 感動은 어찌한 사람의 心琴이든지 울러노치 아니 하고는 말지 아니 한다고 하얏습니다.

그러나 그러케 言語의 精華의 表現을 거치지 아니 할 수 업는 詩歌에서 言語를 어찌케 使用하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興味잇는 일일 쫓 아니라 깊히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업는 問題로 그것은 말할 것도 업시 表現과 技巧에 對한 問題외다. 이곳에서 나는 形式論의 關門으로 들어가지 아니 할 수가 업게 되었습니다.

言語에는 精神이 잇고 生命이 잇습니다. 이 精神과 生命을 理解하여 使用하지 아니 하면 使用하기는 姑畧하고 演 돌리어 使用을 함이 寄食맛게 됩니다. 가튼 材料를 가지고도 하나는 玉이 되고 다른 하나는 모래알이 되고 마는 것 가튼 것은 다 이러한 使用方法的 조코 낮븐데서 생긴 結果외다. 實際 어찌한 約束으로써 言語를 制裁 統一하여 調和시켜노 하면 그곳에는 무어라 말할 업는 言語 그 自身の 本質美가 찬란한 光彩를 發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업시 가튼 言語에서 內容으로는 意味를 그리고 形式으로는 音調美를 찾아는 데 지내지 아니 하는 것이외다. 그러나 便宜上 이리케 內容이니 形式이니 하여서 같나서 말할 수는 잇습니다만은 選擇된 말에는 決코 意味와 音調를 두 가지로 난호아 노할 수가 업습니다. 그것은 어대까지든지 서로 썰날 수 업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외다.

그러면 詩歌에서 이러한 言語를 어찌케 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詩歌에는 어찌한 制限과 約束이 잇는가 하는 것이외다. 무엇보다도 위선 詩歌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낮브고 조코 하는 內容보다도 外形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형식 업시는 아마리 偉大한 思想이라도 表現될 길이 업기 썰문외다. 어찌한 藝術을 勿論하고 藝術品에는 形式과 內容 두 가지가 잇지 아니 할 수 업는 것도 이썰문외다. 그러기에 形式은 內容으로 內容은 形式으로 思想은 그 自身の 價値를 決定하는 것이외다. 이곳에서 詩想은 整頓된 詩形을 要求하지 아니 할 수가 업습니다. 그야말로 업서서는 아니 될 것이외다.

그러면 우리에게 詩形이 업섯는가. 現在 여러 詩人이 詩作을 發表하는 그 形式은 詩形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反問이 잇슬 것이외다. 우리에게 詩形이 업는 것은 아니외다. 一定한 詩形으로는 時調形式이 잇고 그 自身에 亂雜한 感은 잇스나마 自由詩形도 輸入되어 누구나 只今 그 詩形을 使用합니다. 그러나 時調形은 現代의 우리 思想과 感情을 담아 노키에는 자유롭지 못할 쫓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넘우 簡單하여 使用하기 어렵은 點이 만 습니다. 그리고 저 自由詩形에 이르러서는 音節數도 아마 拘俗도 업는 그야말로 自由詩形인 만큼 흘러나오는 詩感 그대로 가장 自由롭게 長短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記錄하여 한 句 한 連을 曼들었기 썰문에 詩人 그 自身の 內在律을 尊重하는 點으로 보아서는 조흔는지 몰르겡습니다. 만은 한마대로 말하자면 原始的 表現方式에 지내지 아니 한다는 感을 禁할 수가 업습니다. 自由詩의 內在律은 實로 十人十色의 觀을 芻하여 (또 그리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이 詩形의 特色입니다만은) 어떤 程度까지 眞正한 意味로의 內在律을 自由詩形의 詩歌가 가지게 되는지 대단히 알기 어려운 일이다. 이리하여 外見上 詩形을 가져 詩歌 비슷한 것이라도 자세히 精讀하며 鑑賞해보면 그 質은 조금도 詩답은 것이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또 그것보다도 아모리 內在律을 尊重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自由詩形의 가장 무섭은 危險은 散文과 混同되기 쉬운 것이외다. 나는 自由詩를 볼 때에 넘우도 散漫함에 어느 點까지가 散文이고 어느 點까지가 自由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놀래는 일도 만습니다 만은 如何間 自由詩의 當面한 위험은 거의 散文에 갓잡은 그 點에 있습니다.

그러타고 나는 自由詩形을 내어버리자는 것은 아니외다. 自由詩形에는 自由詩形 그 自身으로의 存在理由가 充分히 있는 以上 어대까지든지 새길을 開拓해 나아가갈 것이고 내가 압흐로 말할 格調詩形으로 自己의 길을 忠實히 밟아나아가면 그만외다.

그러나 나는 어느 程度까지가 自由詩요 散文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들이기 위하여 朱君의 詩集에서 「사랑」이라는 詩의 첫聯을 뽑아 十行에 配置한 것을 산문으로 羅列해 보겠습니다. 散文으로 그대로 配置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외다.

「나는 사랑의 사도외다. 사랑은 비 뒤의 무지개처럼 사람의 理想을 無限히 끌어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目標외다. 사랑은 마치 물고기를 번식케 하며 奇異한 풀과 바위를 감춰 두며 크고 작은 배를 띄우는 기괴 모르는 바다와도 갓사외다. 것처럼 넓고 것처럼 깊사외다.」

와 가튼 것이니 이것을 散文과 어느 點이 달르냐고 묻는 것은 좀 無理한 말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로보면 別로 韻文的 律動이 업서 散文과 다름이 업다는 생각을 禁할 수가 업슬 쯤만 아니라 돌이켜 이러케 散文式으로 한 줄에 連해 뜻는 것이 읽기에 조치 아 이 할가 합니다. 勿論 이에는 朱君 自身의 內在律이 잇기 때문에 朱君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업습니다만은 그것은 如何間 누가 보든지 이것을 옆줄에 찍어노힘으로 因하여 그 律動的 效果가 더 크고 적고 할 것이 아니라는 事實 하나만은 容易하게 알 수 잇는 것이 외다. 그러면 이 詩는 散文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지 아니 합니까 운문은 立體的으로 音律的 律動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외다.

그것도 「어느덧 너름날은 혼자 저물고」와 가튼 詩句에서는 그것을 兩 줄에 올리거나 또는 句讀點으로 쓴허뜻는데 意味의 큰 關係가 잇고 또는 律動的 效果가 잇는 것이 잇스 니 假슈 이것을

어느덧 너름
날도 혼자 저물고

한다든지

어느덧너름 날도 혼자 저물고

또는 이것을

어느덧 너름날은 혼자저물고

와 가튼 그러한 性質의 것도 아닌 것은 兩 줄을 잡아 뜻는다 하더라도 別로 큰 效果가 잇을 것 가티 보이지 아니 합니다. 自由詩의 內在律이란 이러한 곳에 적지 아니한 不安을 뜻기게 합니다. 하기는 格調詩에도 이러한 散文 답은 詩가 얼마든지 잇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自由詩와 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어대까지든지 定形을 가졌기 때문에 音律美가 잇지 아니할 수 업다는 點에 잇는 것이외다. 또 그러고 散文形에 쓸어너허도 音節數의 制限이 잇는 것만큼 散文化시킬 수가 업는 줄 압니다.

내가 散文과 混同되기 쉬운 것은 自由詩形을 내어버리고 格調詩形이 잇지 아니 할 수 업다고 主張하는 것도 이 點에 잇습니다. 말할 것도 업시 詩人의 詩感에서 흘러나오는 것 을 如實하게 가장 自然스럽게 表現하여 어대까지 詩人 그 自身의 內在律을 尊重하자는 點 에서 나는 自由詩形을 貴히 보며 또한 價値잇는 存在理由를 認定합니다. 自由詩形의 아페 는 얼마든지 開拓지 아니하면 안될 길이 만흔 것도 否完할 수 업는 事實이외다만은 如何 間 나의 意見에는 自由詩形의 아페는 멀리하려고 하야도 멀리할 수 업는 危險이 잇는 것 도 事實이니 그것은 새롭은 傾向을 잡기 前에는 언제나 散文과 混同되기 쉽다는 것이외 다. 더욱 그것이 朝鮮말과 가티 音律적으로 高低長短이 업는 것만큼 貧弱하다는 感을 禁 할 수 업는 言語에서는 그 念慮가 甚하지 아니할가 합니다. 이러케 音律的 貧弱을 所有한

言語에는 자유롭은 詩形을 取하는 것보다도 音節數의 定形을 가지는 것이 音律의 效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나의 혼자로는 獨斷이 아닐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을 例證해노키 위하여 朱요한의 自由詩에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지금에도 못늦는것은
안개속에 돛달고가던배

바람도엮는 아침물질에
소리도엮시 가던배

배도가고 세월도갓건만은
안개속가튼 어린적꿍은

넋날의돛달고 가던배가티-
안개속에가고 오지안는배가티-

와 가튼 詩외다. 이에는 이 詩 그 自身의 가진 內容의 아름다움에도 關係가 있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이 詩가 音律의 美妙를 가지게 된 것은 얼마만한 程度까지 音節數의 制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첫聯이 四五와 四六 둘째聯이 五五와 五三 셋째聯이 四七과 五五 넷째聯이 六五와 六七調로 되었스니 다 그러케 틀리지 아니하는 音節數외다. 그리고 이 音節들이 音力(發音器官)으로는 五音에서 七音이라는 가장 抒情의 ियो 奇數의되는 點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詩가 보드랍고 곱은 音節美를 가지게 된 줄 압니다. 그러면

音節數의 制限을 가진 詩形이 얼마나 自由롭은 詩形의 自由詩보다 음율적인 것은 이것으로써 넉넉히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외다. 만은 結局 詩歌에서 音律의 美妙를 써나서는 그 詩歌의 感動과 詩形의 效果는 생각할 수 업는 것이외다. 이 點에서 詩形論은 音律(韻律) 問題를 말치 아니할 수가 업게 됩니다.

三

韻文과 散文을 普通 區別해 노차면 韻文의 內容에는 獨創的 詩形과 精鍊된 用語와 緊張한 表現 세가지가 있을 것이외다. 그리고 그밖에는 散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不足하여 좀더 설명을 하라하면 그 세가지를 어찌한 約束으로써 制御統一하여 조화시켜 노흐면 음악과 가튼 美音을 엮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언어를 規則的 整齊 속에다 조화 있게 配置해 노흐면 그곳에는 形容하기 어려운 快感이 생깁니다. 이것이 音律이외다. 이것이 音律의 美妙한 快感이외다. 말하자면 詩想의 表現에 대한 形式이외다.

그런데 그 規則的 笄는 調和 있는 配置는 어찌케 할 것인가 이것이 問題이외다. 詩歌가 言語를 써나서는 存在할 수 업는 것이라 하면 이 規則的 ियो 調和的 配置는 말할 것 업시 言語에 性質 如何에 笄하서 할 수맛게 업는 것이외다. 한마디로 말하면 詩歌의 音律(韻律) 言語의 性質로 決定되는 것이니 假令 母音의 長短이 特性인 古代 그리스어語 아라틴語와 가튼 詩에서는 音節의 長短으로써 그리고 強音(엑센트)이 特性인 英語와 獨語 가튼 詩歌에서는 音節의 高低로써 또 그리고 母音의 長短도 업고 強音의 特性도 所有하지 못한 佛語가튼 것에서는 單純히 音節數의 制限으로써 詩形을 定함과 가튼 것이 그것이외다.

朝鮮 말에는 高低와 長短이 업스니 (間或 잇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全體로 問題가 되지 못합니다) 自然히 佛語 그것과 가티 音節數의 制限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업습니다. 이러한 高低와 長短이 업는 言語는 音律的으로 보아 대단히 貧弱한 點이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人力으로 어찌할 수 업는 것이니 그대로 맞지 아니할 수 업는 運命이외다. 그리하여 俗所謂 「詩의 文句」 라는 것에조차 內容에는 詩的 要素가 잇슬는지 몰르되 그 音律의 音調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그야말로 貧弱하다는 感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만듭니다.

그러면 어찌케 詩歌를 音調 조케 읽을 수가 잇슬가 하는 問題외다. 勿論 詩人의 周密한 用意된 技巧로 配置된 詩句에는 그 自身에 別서 音律적 律動이 잇서 어찌한 사람든 지 詩人 自身이 計劃해 노흔 그대로 읽지 아니할 수가 업스니 金素月의 「가는 길」을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番...

저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깁니다

압江물 뒤江물
흐르는물은
어서 팔하오라고 팔하가자고
흘러도 連달아 흐름되다려

와 가튼 것이외다. 作者가 가튼 七五調(第三第四 두 節에 한 字 더하고 덜한 것은 잊 습니다만은)를 가지고 妙하게 配置해 노흔 것만큼 그 音律이 이리케 活躍하는 것인 줄 압 니다.

그러나 都大體 詩란 어썩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勿論 여기에 詩라고 하는 것은 抒情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압호로도 詩라하면 언제든지 敘情詩인 것을 말해둡니다) 標準을 定하면 演說體가 普通 談話나 敘事的 散文보다는 훨씬 느린데라 하여 詩는 그보다도 더 느리게 읽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러치 아니 하고는 맘에 어썩 幻像을 그리며 暗示바들만한 餘裕가 업기 새문이외다. 또 그러고 詩를 읽는 妙美는 調和롭은 單純性의 音群이 이리 흐르고 저리 도는 곳에 비로소 詩境이 열리며 맘에는 感動이 생겨 무어라 表現할 수 업는 것을 늦기케 되는데 있는 것이니 그러한 時間的 餘裕가 업시는 그러한 境域을 가질 수가 업기 새문이외다.

그리하여 나는 春園의 「泗泌城에서」의 時調 첫音

半月城 깊은밤에
水光이 어인일고
三千宮女가
洛花岩에 지단말가
水邊에 푸른 楊柳야
넘어無心.

와 가튼 것을 이리케 일고 씩습니다. 다 말할 것도 업시 時調에는 그 自身의 獨特한 唱法이 잇습니다 만은 그 唱法대로 하지 아니하고 詩를 읽는 것과 가튼 暗誦을 한다면 이 리케 일고 씩습니다. 또 實際로 조흔 詩의 音調 아름답은 것은 無意識하게 소리내어 일고 씩어지는 것이외다. 勿論 사람에게 팔하서

半月城깊은밤에 水光이 어인일고
三千宮女가 洛花岩에지단말가
水邊에푸른楊柳야 넘어無心

이리케 읽기도 할 것이외다(時調唱法이 잇는데 왜 이리케 읽겠느냐고 하는 이가 잇다 면 그 唱法에 의하는 것이 아니요 詩를 읽는 法으로 읽는다 하면 하는 것이니 誤解 말하 야 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 업시 各各 보는바 意味에 팔하서 가튼 것을 이리케도 읽겠고 저러케도 읽을 수가 업지 아니한 것은 아니외다. 만은 詩를 읽음에는 意味만을 팔하서 읽 을 수도 업는 것이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純音律的 律動要求가 열버지는 것 만치 劇的 效果는 잇슬는지 모르나 抒情的 妙美 다시 말하면 보드랍게 反復되는 音律로 인하여 無意識 하게 맘이 暗示로 끌려가는 그러하는 것은 업서지고 말기 새문이외다.

하기야 詩句라는 것은 文法的으로 分解해 늦는다면

半月城 깊은 밤 에 水光 이 어인 일 고
三千 宮女 가 洛花岩 에 지 단 말 고
水邊 에 푸른 楊柳 야 넘어 無心

이러케 되어 그곳에서 名詞니 動詞니 하는 썩다귀만 골라노코 보면 第一章에서는 「水光이 어인일고」 第二章에서는 「宮女가 지단말고」 그리고 終章에서는 「楊柳야 無心하다」 이러케밖에 아니 됩니다. 썩 이러케 되는 것도 그야말로 詩的으로 골라노흔 것이오 제대로 골라노차면 이보다 더 悲慘한 「意味의 송장」이 될 것이외다. 이것은 文法的 分解뿐만이 아니외다. 詩를 意味만 짜서 읽고 그 重要的 音律的 律動을 보지 아니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외다. 그러기에 詩에서는 意味만을 決코 짤 것이 아니고 그 音律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그야말로 蛇足엿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只今 詩를 評하느니 詩를 읽느니 짓느니 하는 이들의 大部分은 다 이러한 文法的 名詞니 動詞니 하는 것만 짜고 그밖에 가장 重要的 形容詞 副詞 가튼 것은 보라고 하지 아니 하는 무리외다. 그러기 때문에 感動을 바들 수 업는 것이오 또한 暗示도 어들 수 업는 것이외다. 죽은 音의 죽은 意味만을 붓잡게 되고마는 것이외다.

그런데 發聲器官의 性質로 보아 한 音節이나 두 音節 가진 말은 例하면 「산」이니 「하늘」과 가튼 것은 한 音力으로 發音할 수가 있스나 세 音節로 된 것부터는 例하면 「어린이」 가튼 것은 그 中央 「린」에다가 힘을 주어 넘히지 아니하는 以上에는 한 音力으로 發音할 수가 업고 반드시 두 音力이 필여케 된다고 합니다. 이 點으로 보아서 音律의 單位는 한 音力에 있는 것이오 두 音力에는 잇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두 音節에 한 音力이 必要하다면 구 音節의 倍가 되는 네 音節은 두 音力이 아니고는 발음할 수가 업는 것이니 「해바래기」와 가튼 것으로 意味로 보아서는 난호아 노흔 수가 업는 것이라도 音力 때문에 어찌할 수 업시 「해바 래기」하고 둘에 난호아 發音케 되는 것이외다. 썩 그러고 五音節 가진 말은 例하면 「格調詩形論」 가튼 것은 「格調 詩形論」 이러케 세 音力이 아니고는 또한 發音할 수가 업는 것은 다 發聲器官의 性質上 어찌할 수 업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나는 春園의 時調를 다시 音律的 單位 다시 말하면 音力으로 난호아 보겠습니다.

半月 城 김흔 밤에 水光 이 어인 일고
 三千 宮女 가 洛花 岩에 지단 말 고
 水邊 에 푸른 楊柳 야 넘어 無心

어썩습니까. 반듯시 이러케 난호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意味로 보아서는 「半月城」하며 썩지 아니하고 십지만 音力 때문에 어찌할 수 업시 「半月」 한 뒤에 「城」 하게 되는 것이며 「김흔밤」 한 뒤에 「에」하고 發音해야 할 것이나 또한 어찌할 수 업시 「김흔 밤에」하며 난호아 發音하게 되니 이 음율의 단위란 人力으로는 어찌할 수 업는 그야말로 天定이외다. 한테 이 音律의 단위로 音力이 音群들이 가튼 時間的 約束 다시 말하면 等時性反復을 하면 그곳에 어떤 律動이 생기니 이것이 音律(韻律)이외다. 이에는 勿論 그 音群들이 內容의 意味와 함께 區別도 되고 集合도 되는 同時에 한 便으로는 音律的 要求와도 區別되고 썩는 集合되어 全體로의 둘이면서 하나되는 調和 속에 말할 수 업는 快感을 느끼게 되는 것이외다. 이리하여 詩歌의 妙美는 意義的 要求와 音律的 要求가 서로 어울려서 흘러도는 곳에 생겨 所謂 內容은 形式을 形式은 內容을 서로 調和시키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나 이 調和는 한 便 곳으로 (形式이건 內容이건) 意識的으로 치어칠 썩에는 깨어지고 말으니 「虛心」하고 對치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態度로 春園의 時調를 읽어보면 보드랍은 音律美를 느끼 수가 잇슬 것이외다.

(동아일보 1930.1.16-26, 28-30)